

# ‘무주공산’ 광산구청장 최대 격전지...새 인물들 부상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삼호 불출마 가다 당선무효형 선고...민주당 경선 새 판 구도 윤난실·김학실·이석형·박시종 등 자천타천

최근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주공산이 된 광산구청장 선거가 지역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출마예정자들 외에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군

으로 김학실 광주시의원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최지현 전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등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재선 도전이 유력했던 김 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윤난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의 출마설이 떠오르고 있다. 윤 비서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삼호 구청장과의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패한 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 단장에 이어 청와대에 입성하는 등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평가다. 윤 비

서관이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 경선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비서관은 기존 광산구청장 선거 후 보군으로 꼽히는 최지현 전 정책보좌관과 함께 민형배 국회의원 계열로 분류돼, 이번 광산구청장 선거에서 ‘민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이탈 말까지 백서 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직 프리미엄 등 광산구 최대 지분을

가진 김 청장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도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조직에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민선 7기를 잘 계승할 사람이 누군지를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이 아직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김 청장에 대한 다른 출마예정자들의 구애 또한 쏠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석형 전 함평군수와 박시종 전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계가 관계자는 “재선에 힘이 실렸던 김삼호 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 윤난실 청와대 비서관의 출마가 새롭게 점쳐지면서 광산구청장 선거가 이번 지선에서 광주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민형배 의원 측 사람들 간 경쟁구도, 김삼호 청장의 조직 움직임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오후 광양시 포스코케미칼을 방문, 민경준 대표로부터 리튬-망간, 리튬-니켈, 리튬-티타늄, 소형전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부겸 총리, 광양 이차전지 생산현장 방문

### 양극재 공정 살펴며 애로 청취 아프간특별기여자 격려 방문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광양 을촌산단에 위치한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손동기 포스코 양극소재 실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방문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손동기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실장으로 부터 기업 및 생산 현황을 소개받은 김

총리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서두르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안정적 가치 사슬 운영, 연구개발 등 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료를 고온에서 가공해 양극재를 제조하는 소성로 등 제품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차전지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통해 기술·인력 보호와 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여수 해양경찰교 육원을 방문, 아프간 특별기여자 생활시설을 점검하고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지난해 10월, 두 달여간의 진전 살이를 마치고 여수에 오신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신 여수 지역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은 오는 2월까지 여수에 머물면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생활법률, 금융경제, 범죄예방 등 한국 내 자립을 위한 필수 생활지식을 익히게 된다. 우리 국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한국의 문화, 법, 생활관습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여 명에 달하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한국에서 꿈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교육 진입 전 사전교육과 학업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언제 신고하나요?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장애인에 대해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남도, 내달까지 AI 잔존바이러스 제거 총력

### 소독 효과 저하 우려 조치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2월 말까지 겨울철새에 의해 광범위하게 오염된 지역에 대한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AI 바이러스 유입보다는 기존 유입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0°C 호수물에서 30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10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간 방역으로 인한 농장주의 피로도 증가에 따른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우려가 크고, 2월까지 잦은 한파와 폭설로 소독시설 동파와 소독약 효과 저하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조치를 강화하게 됐다. 전남도는 잔존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 시군과 농협의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가금농장에 인접한 소하천·저수지의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흙뻑 적시도록 매일 소독할 방침이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장주가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를 매일 일제 소독하도록 비대면 캠페인도 펼친다. 또한 2월까지 3억 원 규모의 소독약을 구입해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다. 농장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현지점검반을 가동해 매일 상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한다. /길용현 기자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여성본부(본부장 양혜령)는 최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여성본부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 국힘 광주선대위 여성본부 출범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여성본부(본부장 양혜령)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여성본부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유봉 백화포럼 사무국장 과 임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장 총괄선대본부장의 인사말과 양혜령 여성본부장, 양금희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양혜령 본부장은 “이제는 호남도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대, 성별, 계파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오선우 기자

## 하주아 “장애인 체육실업팀 설립해야”

장애를 가진 체육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11일 제 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를 가진 체육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실업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체육실업팀은 전국적으로 26개 종목 94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 중구를 비롯한 4곳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 의원은 “매년 2억 원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실업팀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창단 초창기 4년 동안은 대한장애인 체

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받고, 이후 대촌지역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찬기 기자